

조계종 성역화 본궤도 오르나

법난기념관 건립 200억원 등 내년 보조금 493억원 확정

조계종이 내년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국고 보조금이 493억 7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234억원이 늘어낸 액수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12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 받는 국고 예산 확정 결과를 중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조계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총 13건의 사업에 대해 464억 1000만원과 문화재청으로부터 29억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10.27법난기념관 건립 예산 200억원이다. 세부항목으로는 기념관 건립·설계비 등으로 195억원이 책정됐고, 연구용역비로 5억원이 배정됐다.

조계종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조계사 일대에 건립될 10.27법난기념관은 조계종이 역적적으로 추진하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성역

화 불사를 위해 조계종은 지난 11월 17일 '총본산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봉행했고, 조계사 일대를 해원·상생의 공간으로 만들 것을 천명했다.

조계종 기획실 3일 보고

올해보다 234억원 증액

템플스테이 예산 205억원

문화재 관련 예산 29억원

시설 불사 활성화 기대

추진위 총도감 지원 스님은 본지 1020호 칼럼을 통해 "조계사를 중심으로 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를 통해 세계인들이 웃고 행복을 나누는 대한민국 대표 명소를 일신하고자 한다"면서 "특히 성역화

사업 중의 하나인 10.27법난 교육 기념관은 현대 건축 기법을 통해 해원과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0.27법난기념관 건립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조계종의 '총본산 성역화 불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템플스테이 운영비는 동결돼 지난해와 같은 205억 원이 배정됐으며, 내년 10월 8~11일 개최할 예정인 '국립화합과 세계평화 기원대회'는 신규 사업으로 책정돼 9억 원의 예산이, 동국대가 108주년 기념관 내에 건립할 예정인 '세계불교센터 건립'에는 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밖에도 △연등축제 활성화 지원(9억원) △전통사찰 전수조사(10억) △근대 한국불교 대표문헌 영역 출판(2억 5000만원) △산사문화예술제(6억원) △호국불교의승군 기념관 건립(3억원) △청소년 마음등

불(6000만원) 등이 배정됐다.

또한 조계종은 문화재청으로부터 29억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는다. 대부분 불교문화재 전수 조사와 발굴과 관련된 예산들이다.

실제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으로 8억원이, 2단계 사지조사 연구 사업으로 11억원이 배정됐다. 또 중요사지(폐사지) 시발굴 조사 사업비로 2억원, 사찰문화재 다량 소장처 보존관리를 위해 5억 6000만원, 전국 금석문 조사 사업에 3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조계종 이외에도 종단과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정됐다. 광주 관동회 지원에는 2억원이, 가산불교 대사람 편찬 사업에는 5억 원이 배정됐으며, 진각종은 진각문화국제 체험관 건립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한편, 국회는 12월 2일 375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했다. 국회가 신년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한 것은 12년 만이다.

신성민 기자 molp79@hyunbul.com



조계종은 11월 29일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를 위한 수륙재를 개최했다. 사진은 광주전남불교영산회가 천도 의식을 집전하고 있는 모습.

“세월호 희생 영가여, 모두 극락왕생하소서”

조계종, 11월 29일 팽목항서 세월호 수륙재 봉행

세월호 구호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불교계가 세월호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수륙재를 개최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1월 29일 진도 팽목항에서 희생자 유가족 등 대중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수륙재를 개최했다.

이날 수륙재는 조계종 세월호 구

호활동 회향과 함께 열린 것으로 세월호 구호활동은 조계종 구호활동의 최장기간인 220여 일간 진행됐다.

이날 회향 수륙재에는 사회부장 정문 스님,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 선운사 주지 범만 스님 등 호남 교구본사 6개 사찰 주지

스님과 신도대중,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등 400여 명이 참여했다.

조계종진도진도구호봉사단 본부장 범일 스님은 “전국에서 많은 불자들이들의 성원으로 구호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수륙재가 세월호 사건의 끝은 아니다. 진상규명과 침몰배의 인양과정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 팽목항-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국 100여 선원 동안거 들어가다

조계종, 6일 동안거 결제

전국 사찰과 선원이 동안거를 맞아 3개월 간의 수행 정진을 진행했다.

조계종은 12월 6일 전국 100여개 선원에서 일제히 3개월간 동안거 결제에 들어갔다. 전국 선원에서는 2200여 명의 수좌 스님이 방부를 들어 수행하며 일반 사찰 대중도 함께 정진하게 된다.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은 동안거 결제를 맞아 수행납자의 정진을 격려하는 법어를 내렸다. 진제 스님은 결제 법어를 통해 “부처님께서 출세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 지 잘 살피서 정진에 임하라”고 설했다.

또한 “향상의 진리를 알게 되면 향하의 진리도 알게 되고, 향하의 진리를 알면 향상의 진리도 알게 되는 것”이라며 “정진대중은 먼저 향상의 진리를 터득하는데 초점을 맞추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종정 및 총림 방장 법어 8면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 추천

원로회의 3일 회의를 결의... 대중사 법계 품수 결정도

조계종의 계단을 책임지는 전계대화상에 원로의원 성우 스님(불교 TV 대표이사·사진)이 추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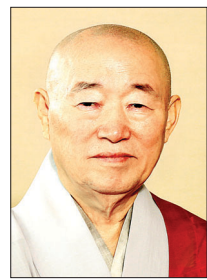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은)는 12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임기가 만료된 고산 스님의 전계대화상 후임에 성우 스님을 추천키로 결의했다.

전계대화상은 계법을 전하는 종단 최고의 계사로 계단의 설치, 운영, 수계식 등을 관장한다. 원로회의의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종정 스님이 전계대화상을 위촉한다.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전계대화상으로 추천된 성우 스님은 고승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3년 파계사에서 사미계, 1967년 해인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범어사 불교전문강원을 졸업했으며, 해인총림 울림을 수료했다. 제 11, 12대 중앙총회의원과 파계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불교 TV 대표이사 소임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원로회의는 원로의원 원경 스님,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우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계단위원 종진 스님에 대한 '대중사 법계 특별전향 심의의 건'도 대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총무원 등 중앙종무기관은



조계종, 100인 대중공사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임기 동안 조계사가 이 시대 불교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교구 중심의 책임행정이 자리잡고 승려복지 체계가 확장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불교계 최초 국제개발협력 협의체 구성된다

조계종복지재단 등 9곳 단체, 11월 27일 준비위 발족

불교계 최초 국제개발협력 협의체가 구축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보경)을 중심으로 지구촌공생회, 로터스월드, 더프라이스, 엔지오비유디, 백천문화재단, 아름다운 동행,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연우 등 9개 단체는 내년 2월 협의회를 공식 발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

에서 불교계의 안정적 사업수행 및 역량강화와 공동 현안 과제에 전략적 대안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들 단체는 11월 27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협의체 구축을 위한 실무책임자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체 결성을 결의,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협의체가 구축되면 사업지역 및 규모,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는 불교계 국제개발협력사업 분야에서 현지사업에 대한 현황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로

불교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질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 불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제개발 연구작업의 활성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준비위는 남은 기간 동안 협의회 명칭 및 회원단체 자격과 회칙안을 준비하고 역량강화사업, 네트워크 강화, 불교계의 신규활동가 발굴 및 양성 사업 등을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불교계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는 약 20여년. 현재는 약 30여개의 국제 기관들이 직간접적으로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체 구축 필요성은 예전부터 제기돼 왔다. 물론 네트워크 형성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6년 몇 개 단체가 모였지만 각자 사업에 전념하느라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다시 실무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협의체 구축 논의가 급진전 됐다. 지난 8월 태

국 시민사회운동가 솔락 시바락사 박사 강연과 11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아시아 시민사회 컨퍼런스 조직위를 공동 주최한 것도 추동력이 됐다. 한 개 단체가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컸던 사업인만큼 협력 필요성을 절감한 계기였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은 “공동 영역에 있는 단체끼리 서로 방향을 확인하는 계기가 없다면 아무리 질 높은 교육을 한다해도 의미가 없다”며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단체들이 동질성을 갖고 공동체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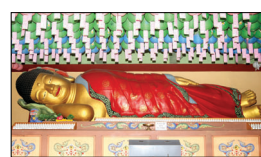
더프라이스 상임이사 묘장 스님 역시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단체 전체를 합해도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에 못 미치는 규모”라며 “그러나 우리는 아이티 긴급구호에서 함께 협력한 경험이 있고 전세계 불교 중 앞장서 국제개발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모범적인 협력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현진 기자

1022호 INDEX

5 **시방세계 원효 체현관 준공 기념 수도사 사찰음식 향연**



12 **테마가 있는 사찰 와불이 있는 사찰 용인 와우정사**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입재 2014.12.22 (월)

회향 2015.01.19 (월)

장소 통도사 설법전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모아 禪, 教, 律의 큰 스승들을 모시고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 그리고 선재동자의 금강과 같은 구법의 마음을 배우고 이 공덕으로 일체 유정과 무정들이 정도에 왕생하기를 발원하는 화엄산림을 봉행하오니 불자들에게 많은 동참 바랍니다.

동참금 영가동참비 : 1위당 이만원 | 온산림 동참금 : 이십만원 | 반산림 동참금 : 십만원